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2, 유신론적 논증, 1부, 우주론적 논증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유신론적 논증, 1부,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유신론적 논증은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모든 유신론적 주장은 신에 대한 믿음의 합리성을 증명하거나
뒷받침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플라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양에서 수세기 동안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우주론적 주장은 플라톤이 그의 저서 중 하나인 법칙에서 처음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된 다른 주장 중 많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는 설계에 따른 주장인 목적론적 주장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주장, 정신 또는 의식에 따른 주장, 존재론적 주장, 종교적
경험에 따른 주장, 기적에 따른 주장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 우주론적 주장, 목적론적 주장, 정신에
따른 주장, 존재론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실제로 명명한 우주론적 논증으로 시작하여, 그는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의 기본 아이디어는 세계의 존재에서 첫 번째 원인, 세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궁극적인 인과적 설명의 필요성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우주론적 논증의 한 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무언가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는 우주론적 논증의 한 버전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칼람 논증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중세 시대에 일부 이슬람 철학자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논증은 우주가 시작을 가지고 있었고, 우주가 시작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독특하다.

따라서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존재의 원인이 있고,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으므로 우주는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론적 논증의 저명한 옹호자 중 한 명은 알렉산더 프루스트이며, 우리는 이 논증에 대한 그의 생각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칼람 논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첫째, 우주는 실제로 설명이 있는가? 제1 원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명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주의 제1 원인은 신이어야 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프루스트가 역순으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제1 원인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에 제1 원인이 있다는 생각에서 유신론으로 이동하는 데는 겉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칼람 논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는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과학적이거나 기계론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 존재여야 하므로, 첫 번째 원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따라서 신과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존재는 극도로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불변하며, 또한 극도로 지적이고 전지전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을 합치면 고전적 유신론의 신과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어떤 대상은, 글썄요, 일종의 기계적 원인이나 인격적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물체가 주어진 경우에 뜨거운 것은 물체가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구성적 설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경우 열을 설명하기 위해 대상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프루스트는 사물 자체의 측면에 호소하는 구성적 설명은 궁극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함으로써 이에 답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우연적 사태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설명은 구성적이 아니라 인과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항상 구성적 사태가 왜 성립하는지 또는 칼의 경우 그것이 전혀 존재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열을 설명하려면 어떤 종류의 인과적 설명이나 그것이 어떻게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었는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인과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성적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관해서 기계적 원인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개인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원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명이 있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택합니다. 비인과적 궁극적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묻거나 비궁극적 원인의 사슬, 즉 첫 번째 요소가 없는 인과적 사슬, 즉 시작이 없는 유한한 원인의 연속에 호소함으로써 인과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로를 택하여 비인과적 궁극적 설명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적 원리나 궁극적 우주 법칙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주를 발생시킨 우주 외부의 어떤 실체나 존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프루스트에 따르면, 여기서의 문제는 이것이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설명은 사물이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존재여야 하며,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선 원리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인과적 힘을 가진 실체가 아닙니다. 역제곱 법칙, 중력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이나 제2법칙을 생각할 때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칙들은 실제로 공식입니다. 그것들은 우주에서 사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중력이 어떤 것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실체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이 규칙성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종류의 실체나 행위자 또는 존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전체 우주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형이상학적 원리는 인과적 설명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흄은 두 번째 경로를 취하는데, 이는 궁극적이지 않은 원인의 시작 없는 사슬이라는 생각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각 우연적 존재가 다른 우연적 존재인 원인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과정을 진행시킨 궁극적이고 전능한 존재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각 부분을 다른 유한한 부분에 호소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모든 부분이 설명될 것이고, 궁극적인 원인에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루스트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이 전체 사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연적 존재의 인과 사슬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체 사슬을 시작한 첫 번째 구성원이나 행위자가 없어요. 그는 대포알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대포알의 비행은 비행하는 각 순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의 상태는 이전 상태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흄이 여기서 말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것은 질문을 던집니다. 대포알이 날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날아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공중을 날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주의 시작과 유사한 대포알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입니다. 무엇이 처음에

우연한 존재의 인과 사슬을 시작했을까요? 시작이 없는 연속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이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 질문은 궁극적인 설명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설명하는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원리가 포함되니까? 충분한 이유의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프루스트의 버전은 모든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에는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적 진실은 필연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에 테이블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방에 테이블이 없었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없는 필연적인 진실과는 반대로, 삼각형이 세 면이라는 것, 총각이 결혼했다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사실입니다.

거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는 우연적 진실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인과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이유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우연적 진실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흠의 반대 중 하나는 우주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관해서, 우리가 우주나 무엇이든 무(無)에서, 즉 설명 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든 갑자기 존재하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충분한 이유의 원칙이 여기서 틀렸을 것입니다. 프루스트는 이것이 인과적 힘이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우리의 능력 측면에서 실제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에 대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상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한 인과적 영향의 부족을 성공적으로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는 이것이 실제로 일종의 자기기만이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 없이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황의 진실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흠이 그 부분에서 잘못 인도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이유의 원칙을 믿는 우리의 정당성은 무엇일까요? 프루스트가 지적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이유의 원칙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인과적 설명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차에 가서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을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갑이나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면, 글썄, 그냥 저절로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항상 어떤 종류의 인과적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른 모든 맥락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우주 전체에 관해서도 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둘째, 충분한 이유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나머지 지식과 이해의 대부분을 무너뜨립니다. 순수 수학을 할 때처럼 인과적 설명이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삶과 탐구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인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확실히 과학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 사물의 상태와 존재가 인과적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이유의 원리를 신뢰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충분한 이유의 원리에 기반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이유의 원리를 거부하거나 의심한다면 우리는 매우 급진적인 회의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주론 옹호자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충분한 이유의 원리를 사용하여 제1원인의 존재를 추론한 후, 그것을 포기하고 제1원인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한 선택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무엇이 신이 우주를 만들게 했을까요? 우리가 우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신에게 호소하고 여기서 인과적 추론에 그렇게 전념한다면, 우리는 차례로, 신은 어떨까요? 무엇이 그가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프루스트의 대답은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한 것은 그가 가진 특정한 가치와 우리 세상이 이러한 가치나 신의 목적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의도나 동기에 호소할 수 있지만, 신이 그런 가치를 지닌 이유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묻습니다.

샤를르 프루스트는 어떤 이유에서든 신은 자신이 하는 일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신은 자신이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신의 궁극적 가치,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신이 우주를 만든 이유와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항상 신의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프루스트는 말할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의 원칙을 긍정한다고 해서 모든 설명이 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설명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는 누가 그것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일으킨 사람이나 사물이 왜 존재하게

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이러한 다른 배경 정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린 이유도 모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실제 인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역사가들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과적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유나 어떤 이유 중 하나도 모르더라도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칼람 주장의 또 다른 주요 옹호자이며, 그와 웨스 모리스턴이라는 또 다른 철학자는 이 주장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웨스 모리스턴은 기독교 철학자였지만, 그는 특히 자연 신학과 유신론적 주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칼람 주장과 크레이그의 주장에 대한 특정 옹호에 대한 주요 비판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람 논증을 옹호하는 크레이그의 주장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두 번째 전제에 대한 그의 옹호입니다. 그는 이를 옹호하는 철학적 주장 몇 가지와 과학적 주장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과거라는 개념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철학적 주장은 실제 무한한 시리즈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시작 없는 일련의 사건은 실제로 무한한 일련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시간 속의 시작 없는 일련의 사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도서관 책이 있는 무한히 긴 선반에 대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도서관 책 선반에서 다른 모든 책은 파란색이고 다른 모든 책은 빨간색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길고, 무한히 길고, 파랑고, 빨강고, 파랑고, 빨강고, 파랑고, 빨강고, 파랑고, 빨강고, 빨강고. 우리는 논쟁을 위해 실제로

무한히 긴 책 시리즈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의 총 수는 물론 무한할 것이지만, 이제 그 시리즈에서 파란 책의 총 수는 얼마일까요? 그것도 무한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의 총 수의 절반은 그 시리즈의 전체 책 수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반이 전체와 같다는 모순을 암시합니다. 크레이그는 그것이 실제 무한 급수라는 개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웨스 모리스턴이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크레이그의 주장이 유클리드의 격률이라고 불리는 것의 한 버전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의 격률은 집합이 그 자체의 모든 부분 집합보다 더 많은 원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레이그가 여기서 가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스턴은 이것이 유한 집합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한 집합에 관해서는 유클리드의 격률에 대한 모든 베팅이 무효화됩니다. 어쨌든 그는 유클리드의 격률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논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들 사이에 약간의 교착 상태가 있습니다. 모리스턴은 또한 무한히 많은 멤버를 가진 집합의 예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모든 유한한 공간 덩어리가 무한히 하위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반으로 자르고, 그 반을 반으로 자르고, 그것을 반으로 자르고, 아마도 무한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작고 유한한 공간에서도 무한한 수의 하위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나요? 크레이그의 답변은 그것은 공간이 잠재적으로 무한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무한한 일련의 공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모리스턴은 그 별개의 지역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간이 그런 식으로 잠재적으로 무한히 분할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거기에 범위가 없거나

그렇게 분할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면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범위의 잠재적 분할 가능성은 실제로 무한한 하위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레이그는 무한한 과거에 반대하는 또 다른 철학적 주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간 속의 일련의 사건은 한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형성된 컬렉션입니다.

한 멤버를 다른 멤버에 더해 형성된 컬렉션은 실제로 무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속의 일련의 사건은 실제로 무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모리스턴은 물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간적 시작이 없는 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우주에는 시간적 시작이 없으므로 크레이그의 생각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크레이그는 빅뱅 우주론에 호소하여 무한한 과거에 반대하는 과학적 주장을 합니다. 그는 여기서 20세기 초에 에드윈 허블이 발견한 적색 편이를 언급합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먼 별, 먼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빛 스펙트럼의 붉은색 끝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모든 천체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광학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한 더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고,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대략 빛의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무한히 확장되지 않으므로, 아마도 유한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우주의 모든 물질이 어떤 종류의 유한한 덩어리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빛의 속도로 폭발했고 그 이후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우주가 시작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자들은, 120억에서 140억 년 전쯤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다수의 우주론자들은 그것이 일어났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유한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와 우주론자들은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칼람 논증의 두 번째 전제에 대한 일종의 추천입니다.

이에 대한 모리스턴의 반응은, 기껏해야, 이것은 우주가 시작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팽창과 수축이 끝없이 계속되는 진동하는 우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진동하는 우주 이론은 요즘 유행에서 벗어났지만, 모리스턴은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에는 원인이 있어야 할까요? 크레이그는 이 질문, 특히 칼람 논증의 첫 번째 전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시간을 조금 덜 할애하는데, 여기에는 논란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칼람 논증의 다른 전제보다 이 전제에 대한 도전이 훨씬 적습니다.

크레이그의 요점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이유의 원리와 어떤 대상이 순전히 단순하게 무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크레이그는 호랑이의 예를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이 방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또한 무서운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직관적 증거이며, 우주 전체가 무에서 원인 없이 그냥 나타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사물이나 동물에 대한 그 제안의 부조리를 인정한다면, 온 우주가 순전히 무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얼마나 더 부조리한가? 모리스턴은 이에 대해 호랑이에 대해 그렇게 믿는 이유는

호랑이가 우리가 경험하는 종류의 사물이기 때문이지만, 온 우주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 정도로 외삽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호랑이나 의자와 같은 비교적 작은 사물이 갑자기 생겨날 수 없다면, 그런 사물로 이루어진 온 우주가 인과적 설명 없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클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원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까요? 크레이그는 첫 번째 원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계적 원인은 관련 조건이 마련되는 즉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적했듯이 프루스트가 지적한 요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주는 시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가진 원인의 종류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시작이 있으니, 어떤 다른 원인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과적 설명의 또 다른 주요 범주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만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극도로 강력해야 하고, 우주를 만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의도가 있어야 하고, 우주를 생명의 가능성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극도로 지적이고 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주장, 미세 조정 주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주장은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자질을 함께 취합니다: 힘, 지능, 의도성,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개인적인 존재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의 궁극적 원인에 관한 한 개인적인 신의 초상인 듯합니다.

모리스턴의 답변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창조가 그것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혹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는 영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우주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주의 본질, 물질이나 에너지의 본질, 그리고 영으로서의 신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그것을 알아내는 데 개념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이고 초강력하고 지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칼람 버전의 주장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유신론적 논증, 1부, 우주론적 논증입니다.